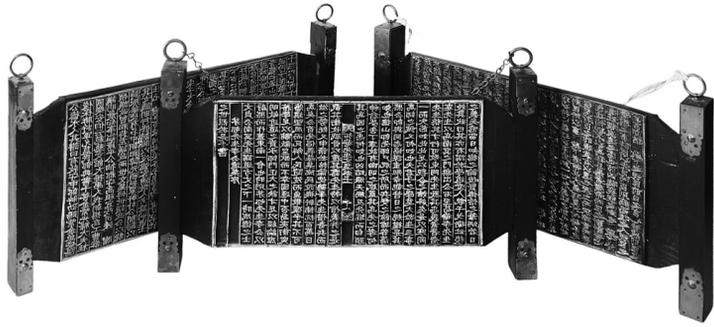


되찾아야 할 우리 문화유산 25만점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29개 국가 박물관·미술관 조사
일 43.2% 최다 보유...미·독일 순
약탈·도난·선물·거래 등 이유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척암선생문집'·'송자대전'·'반암집' 책판 3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거 도난이나 약탈, 선물, 구매 등 여러 이유로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유산이 25만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12만1143건, 세부 수량으로 보면 25만6190점에 이른다.

일본, 미국, 독일 등 29개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등 801곳을 조사한 결과다.

작년 1월 기준 통계(24만7718점)와 비교하면 8472점 늘었다.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 통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2012년 7월 재단이 설립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15만2915점(2013년 1월 기준)으로 파악됐으나, 매년 조금씩 늘면서 2021년부터는 20만점 이상으로 파악된다.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모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소장품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잖다.

소장 정보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흩어진 문화유산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당국과 학계 추론이다.

한국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는 일본으

로 나타났다.

도쿄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일본 내 주요 문화시설이나 개인이 소장한 한국 문화유산은 확인된 것만 11만611점으로, 나라 밖 문화유산의 약 43.2%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6만8961점), 독일(1만6082점), 영국(1만541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영국박물관,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문화기관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우도 적잖다.

한국 문화유산이 낯선 땅에 자리한 배경은 다양하다.

19세기 후반 열강의 침탈,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 통치 등을 겪으며 도난·약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사례가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 혹은 수집, 기증, 선물 등의 방식으로 나간 경우도 존재한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환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경복궁 선원전에 걸린 편액, 고려시대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옮겨 적는 작업이나 그러한 경전), 조선 전기 불화 등이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100년 넘게 쓸쓸히 있었던 '관월당' (觀月堂)은 수년간의 작업을 거쳐 부재를 해체해 건물 전체가 귀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재단을 통해 국외의 한국 문화유산을 환수한 사례는 올해 1월 기준 총 1299건(2855점)으로, 기증 방식으로 돌려받은 사례가 96.2%(1천249건)로 가장 많다.

경매나 협상을 통해 구매한 환수 사례는 3.8%(49건)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 대하여

'동료작가 소설읽기' 26일 광주 동구 비트윈 디제이아카데미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늙음이 누구에게는 편안한 시간일 수도 또 어떤 이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다.

73세 장영희 씨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다. 결혼한 적은 있지만 남편 외도로 현재는 혼자다. 부모님 유산과 보험 덕에 비교적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늘 가슴 한켠이 허전하다. 빈곤에서는 자유롭지만 삶의 허무와 권태는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갇아먹고 있다.

어느 날 그녀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광일 씨는 남자를 알게 되면서 삶은 활기를 띠지만, 문제는 광일 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구 비트윈 디제이아카데미 1층. 동료작가 소설읽기 스물 세 번째 시간으로 기획된 이번 시간에는 노년에 이른 인물들의 심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진정한 늙음의 의미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작가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그 이면에 심각한 노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소설에는 늙는다는 것의 의미를 비롯해 노년의 삶을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뤘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 출신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2014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창작집 '부표의 전설'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무등수필문학회 연간집 '무등수필' 나왔다

무등수필문학회는 36년간 수필을 매개로 동인 활동을 해온 문학단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문학 한 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문학에 대한 애정, 정진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 무등수필문학회가 서문여섯 번째 연간집 '무등수필' (예원)을 펴냈다.

'그림자랑 춤추기'라는 제목의 이번 연간집에는 김선식 수필가를 비롯해 송미심, 정승윤, 박석구, 김향남, 염장열, 임명자, 선수원 수필가가 작품을 게재했다. 책 제목 '그림자랑 춤추기'는 염장열 수필가의 작품 제목을 차용했다.

작가들은 저마다 4-6편씩의 작품을 수록해 독자들로 하여금 수필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염장열의 '날마다 탄생, 여기 지금 이', 김선식의 '다시 노고단에서', 송미심의 '장미의 하소연', 임명자의 '양귀비', 박석구의 '마지막 나루터', 김향남의 '빨강에 대하여', 정승윤의 '청연소품', 선수원의 '풍



경소리' 등이다. 작가들은 각각의 작품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담았다. 문학이 완성이 아닌 매번 다시 쓰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을 투영한 것이다. 무등수필문학회 관계자는 "우리가 지켜온 문학은 언제나 삶과 함께 하는 글쓰기였다. 산과 들, 사람과 사물, 역사와 개인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말의 자리를 낮추고 사유의 깊이를 포기하지 않는 글쓰기. 풍경을 기록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묻는 글들이고, 개인의 체험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그늘을 함께 끌어안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기심 많은 거인 앙갈로와 떠나는 모험

어린이 창작작 '거인 앙갈로'
ACC재단, 3월 14~15, 21~22일

"바닷물은 왜 짠까?" 아이들의 궁금증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노래와 움직임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어린이 창작작 공연 '거인 앙갈로'를 3월 14-15일, 21-22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작품은 우리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맛돌'과 필리핀 민담 '바닷물이 왜 짜졌을까'를 한데 엮어 새롭게 만든 이야기다. 소금이 필요할 때마다 배를 타고 소금섬으로 가던 삼마를 사람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로 길이 막히며 위기에 놓인다. 사람들은 전설 속 거인 '앙갈로'를 떠올린다. 과연 거인을 만나 다시 소금섬에 갈 수 있을까.

공연은 음악과 몸짓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무대다. 라인 스틱이 만드는 빛소리, 종으로 표현한 바람 소리, 콘트라베이스가 들려주는 거인의 소리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관객은 배우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야기 속 장면을 만들어간다.



어린이 음악극 '거인 앙갈로'의 한 장면.. (ACC재단 제공)

제작은 창작극악그룹 '그림'이 맡았다.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해 온 단체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음악극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ACC재단 관계자는 "서로 다른 나라의 옛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5000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국문학 번역 최대 1600만원 지원

대산문화재단, 5월 18일까지 번역·연구·출판 지원 공모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학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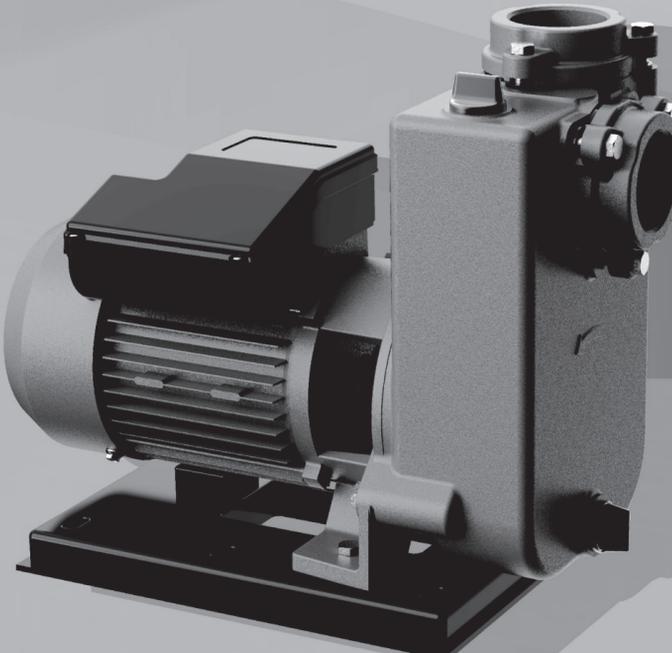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한국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연구하고 해당 언어권에 출판·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번역자에게는 언어권과 분량에 따라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출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연구·출판은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한국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번역가,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원, 한국문학을 소개하고자 하는 해외 출판사 등이다.

참여하려면 5월 18일 오후 5시까지 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지원 요강 및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